

ALL ABOUT BEAUTY

당신을 더 아름답게 할 뷰티 노하우

2020 F/W 트렌드 완전 정복
홈 에스테틱 매뉴얼
환절기 피부를 위한 수분 레시피

OCTOBER 2020 VOL.624

향/장





SINCE 1958

<향장>은 1958년 '화장계'라는 이름으로 창간한 이후 현재까지 63년간 624호를 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월간 뷰티 매거진입니다.



MAIL
HYANGJANG@MCKOREA.COM



WEB
WWW.APGROUP.COM



COPYRIGHT 2020
AMOREPACIFIC

(주)아모레퍼시픽의 동의 없이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02 NEWS 하이엔드 안티에이징 케어	30 PRODUCT 실화수	44 SCENTS 가을을 위한 향
04 NEWS-TREND 로우 글로우 베이스	32 PRODUCT 헤라	46 REVIEW 믿고 보는 품평단의 품평 리뷰
06 MAKEUP 돌아온 90년대 메이크업	34 PRODUCT 아모레퍼시픽	48 ICON 소셜 벤처 창업자를 만나다
12 MAKEUP PLAY 난이도별 트렌드 메이크업	36 PRODUCT 프리메라	52 PLACE 미술관 옆 아트 습
16 PRODUCT 환절기 수분 보충 아이템	38 ISSUE 아이 케어의 모든 것	54 ESSAY 정현주 작가의 아름다운 에세이
22 SPECIAL 집콕 에스텍	42 INGREDIENT 탄력의 핵심, 콜라겐	56 EDITOR'S PICK 10월의 강추템

발행일 2020년 10월 1일 발행 통권 624호 발행인 서경배 편집인 안세홍 발행 (주)아모레퍼시픽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인쇄 (주)태신인쇄 02-853-6574 인쇄인 서명현 제작 문의 노연서 제품 문의 080-023-5454 기획·편집 MCK Publishing Co., Ltd 에디터 최향진, 김희진, 이성진, 안새롬 디자인 www.pentagramgraphic.co

※<향장>은 WWW.APGROUP.COM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전국의 아모레 카운슬러를 통해 무료로 배포하는 방문판매용 매거진입니다.



오감을 만족시키는 하이엔드 크림

널뛰는 기온과 차가운 바람이 피부를 괴롭히는 환절기. 수선화의 강인한 생명력을 담아낸 기술력은 물론, 피부를 감싸고 코로 느껴지는 향까지 오감을 만족시키는 헤라 시그니아 크림으로 궁극의 안티에이징 케어를 경험해보라.



헤라 시그니아 크림
60ml, 28만원.
3백만 개의 나르시스
식물세포 성분이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고 탄력을
높여주는 안티에이징 크림.

EDITOR: AHN SAE POM

아모레퍼시픽이 지난 50여 년간 지속해온 셀 연구 노하우와 식물세포에 관한 연구 끝에 탄생한 헤라 시그니아 크림은 단순한 럭셔리 안티에이징 크림이 아니다. 수십 년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기술력은 물론 바르는 순간부터 피부 속부터 쫘득하게 차오르는 탄력과 부드러운 피부결, 그리고 은은하게 감도는 수선화 향까지 느낄 수 있는 오감 만족 하이엔드 크림이니까.

시그니아 크림은 강력한 생명력을 지닌 수선화에서 시작된다. 메마른 땅에서도 시든 꽃과 줄기를 잘라버리고 물을 주면 새롭게 피어나는 수선화의 꽃과 잎, 뿌리에서 추출한 식물세포를 애플 스템코드 기술로 식물세포 연구의 결정체라고 평가받는 나르시스 식물세포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무려 3백만 개 나르시스 식물세포가 크림 한 통에 오롯이 담긴 헤라 시그니아 크림은 얼굴에 바르는 즉시 풍

부한 수선화 향이 부드럽게 퍼지면서 심신을 편안하게 할 뿐 아니라 쫘득한 고농축 크림 제형이 밀착해 촉촉하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꿔준다. 실제로 시그니아 크림을 바른 뒤 탄력과 피부결이 개선되는 건 물론, 스킨케어만으로는 없애기 힘든 미간의 주름이나 팔자주름 등 표정 주름이 완화되는 놀라운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시험 기관 ㈜엘리드).

시그니아 크림의 안티에이징 파워를 더욱 효과적으로 경험하고 싶다면 시그니아 워터와 세럼을 스킨케어 루틴에 추가할 것. 피부의 턴오버 주기에 맞춘 4주 프로그램 앰플은 외부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고, 세안 후 가장 먼저 바르는 워터는 나르시스 식물세포를 함유한 골드 드랍이 들어 있어 이후에 바르는 스킨케어 제품의 유효 성분이 효과적으로 흡수될 수 있게 작용한다. **10**



로우 글로우 뷰티

'가공되지 않은 광채'를 의미하는 로우(raw) 글로우가 2020 F/W 뷰티 트렌드 키워드로 부상했다. 자연스러운 혈색을

지키고 결점만 가리는 베이스메이크업의 핵심은 쫘득하고 수분감 있는 파운데이션을 얇게 바르는 것.



헤라 글로우 래스팅 파운데이션 SPF25/PA++, 2IN1 바닐라, 35ml, 6만5천원. 쉬어 볼류밍 콤플렉스™로 파뽀결을 따라 매끈하게 밀착해 얇고 투명한 피부 화장을 할 수 있다.

EDITOR: AHN SAE ROM, PHOTOGRAPHY: WWW.GETTYIMAGESKOREA.COM, CHOI SEUNG HYUK(제훈)

정교하게 쌓아 올린 두꺼운 베이스 메이크업이 아니라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듯한 베어 페이스가 몇 시즌 전부터 뷰티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이번 시즌에는 베어 페이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로우 글로우 페이스가 버버리와 빅토리아 베컴, 샤넬 등 다양한 브랜드의 런웨이에 등장했다. 얼굴의 광대뼈와 입술, 이마 등에 자연스러운 광이 감도는 베이스 메이크업을 뜻하는 로우 글로우는 화려한 입술이나 눈 화장과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세안 직후의 산뜻한 혈색을 표현하는 데도 제격. 결점만 가리는 정도로 가볍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한 상태에서 광대뼈에 하이라이터를 자연스럽게 더해 광택을 주고, 입술에 반짝이는 글로스를 발라 글로우를 표현하면 간단하게 로우 글로우 페이스를 완성할 수 있다. 단, 베이스 메이크업이 얇은 만큼 본

연의 혈색을 살려 건강한 안색을 만들어주는 것이 포인트. 이 때문에 이번 시즌에는 백스테이지의 모델이 메이크업 전 다양한 방법으로 페이스 마사지를 하는 장면들이 포착됐다. 혈색을 살리는 것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파운데이션을 얇게 바르는 것. 이를 위해서는 우선 쫘득하고 수분감 있는 파운데이션과 파운데이션의 밀착을 돕는 브러쉬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헤라의 글로우 래스팅 파운데이션은 피뽀결과 모공 사이에 끼이는 일 없이 매끈하게 발리는 쉬어 볼류밍 콤플렉스 기술을 사용해 오랜 시간 들뜨지 않고 촉촉하게 유지되는 것이 특징. 부드러운 미세모가 촘촘하게 혼합된 고밀도 브러쉬로 얼굴에 핑거듯 바르는 것도 결 자국 없이 파운데이션을 얇게 바를 수 있는 방법이다. **10**



응답하라! 1990

과감한 컬러와 패턴, 막잠에서 갓 상태인 듯 내추럴하기 그지없는 룩이 공존하던 1990년대.

그 시절의 메이크업이 다시 돌아왔다.



JULIA ROBERTS

컬을 잔뜩 넣은 풍성한 헤어스타일과 짙은 눈썹, 그리고 자연스러운 MLBB 컬러 립스틱을 입술에 꼭 채워 바른 모습이 지금 유행하는 스타일과 꼭 닮았다.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으로 피부를 세미매트하게 정돈하고, 헤라 색도 듀오 #04 피키로 눈가에 음영을 준 다음 설화수 에센셜 립세럼스틱 #43 번트 선셋을 입술에 꼭 채워 바른면 세련된 1990년대 레트로 룩을 연출할 수 있다.



KATE MOSS

주근깨가 드러날 정도로 화장기가 거의 없는 얼굴에 자다 일어난 듯 부스스한 헤어스타일로 1990년대의 스타일 아이콘이 된 케이트 모스. 설화수 퍼펙팅 파운데이션 글로우를 얇게 바르고, 헤라 섀도 듀오 #02 이지고잉 비스크로 눈가에 음영을 준다. 입술에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밤 #101 할라피뇨를 가볍게 바르면 케이트 모스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룩이 완성된다.



CINDY CRAWFORD

그라데이션이 선명한 아이 메이크업과 입술보다 두껍게 바른 짙은 립스틱이 어우러진 슈퍼 글램 룩은 슈퍼모델 신디 크로퍼드의 시그니처 메이크업. 헤라 섀도 듀오 #03 인튜이티브로 눈꼬리를 강조한 뒤 그라데이션으로 연출해 음영을 주고, 설화수 에센셜 립세럼스틱 #54 마롱레드 컬러를 입술에 꼭 채워 바르면 끝.



WINONA RYDER

흐트러진 머리, 빈진 듯한 스모키 아이로 퇴폐적인 분위기를 풍기던 위노나 라이더는 1990년대를 대표하는 청춘스타. 헤라 아이 디자이너 펜슬 이호 블랙으로 위아래 아이라인을 메워 그린 뒤, 헤라 색도 듀오 #03 인튜이티브로 음영감을 더해 아이 메이크업을 마무리한다. 입술에는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글로스 #422 린제리를 살짝 발라 마무리한다.

MAKEUP: JAMIE YOON, DONG HYUN KIM, VIVI AHN (AMORE PACIFIC LUXURY MAKEUP TEAM)
MODEL: KIM JI YOON, HAIR: LEE HYE YOUNG, STYLING: PARK MI KYUNG



레벨 업! F/W 트렌드 메이크업

깊어진 계절에 맞게 메이크업도 가을 빛으로 물들여야 할 때.
난이도별 트렌드 메이크업 노하우를 공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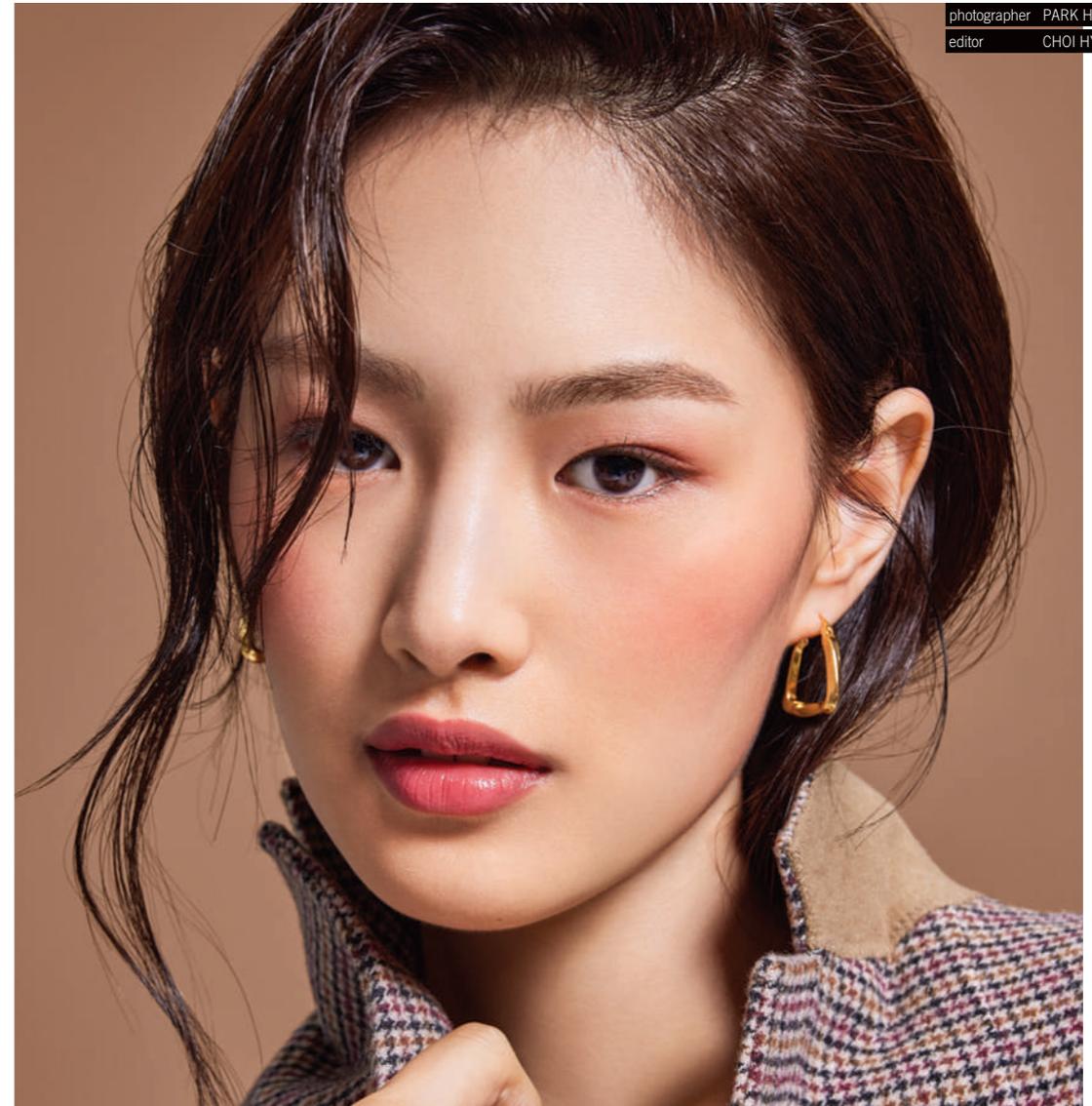
LEVEL 1 EASY GLOW

트렌디한 메이크업을 가장 쉽게 연출하는 방법은 베이스에 광채만 더하는 것. 이슬이 맺힌 듯 촉촉하게 빛나는 이지 글로우 스킨이아말로 2020 F/W 메이크업의 대세다.



헤라 매직 스타터 SPF25/PA++ .01호 로즈, 35ml, 4만7천원.
헤라 글로우 래스팅 파운데이션 SPF25/PA++ .35ml, 6만5천원.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밤 #279 무디, 3.5g, 3만5천원.

- step 1 헤라 매직 스타터 01호 로즈를 얼굴에 얇게 펴 발라 매끈하고 화사한 피부로 정돈한다.
- step 2 헤라 글로우 래스팅 파운데이션을 얇게 바르면 촉촉한 베이스 메이크업이 완성된다.
- step 3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밤 #279 무디를 얇게 발라 투명한 입술로 마무리한다.



photographer PARK HYUN JIN
editor CHOI HYANG JIN

LEVEL 2 TONE-ON-TONE

눈과 볼, 입술을 모두 톤이 비슷한 컬러로 물들이는 톤온톤 메이크업이 몇 시즌째 유행하고 있다. 특히 톤이 다운된 핑크 컬러는 누구에게나 잘 어울린다.



설화수 퍼펙팅 파운데이션 SPF17/PA+. 35ml, 7만원.
설화수 에센셜 립세럼스틱 #38 서틀 핑크, 3g, 4만원.
헤라 페이스 디자인 블러셔 #05 스킨프팅 핑크, 10g, 4만8천원.

- step 1 설화수 퍼펙팅 파운데이션을 발라 깨끗하고 윤기 나는 피부로 정돈한다.
- step 2 설화수 에센셜 립세럼스틱 #38 서틀 핑크를 입술에 가볍게 바른다.
- step 3 헤라 페이스 디자인 블러셔 #05 스킨프팅 핑크를 눈과 뺨을 연결하듯 바르면 번트 핑크 톤온톤 메이크업이 완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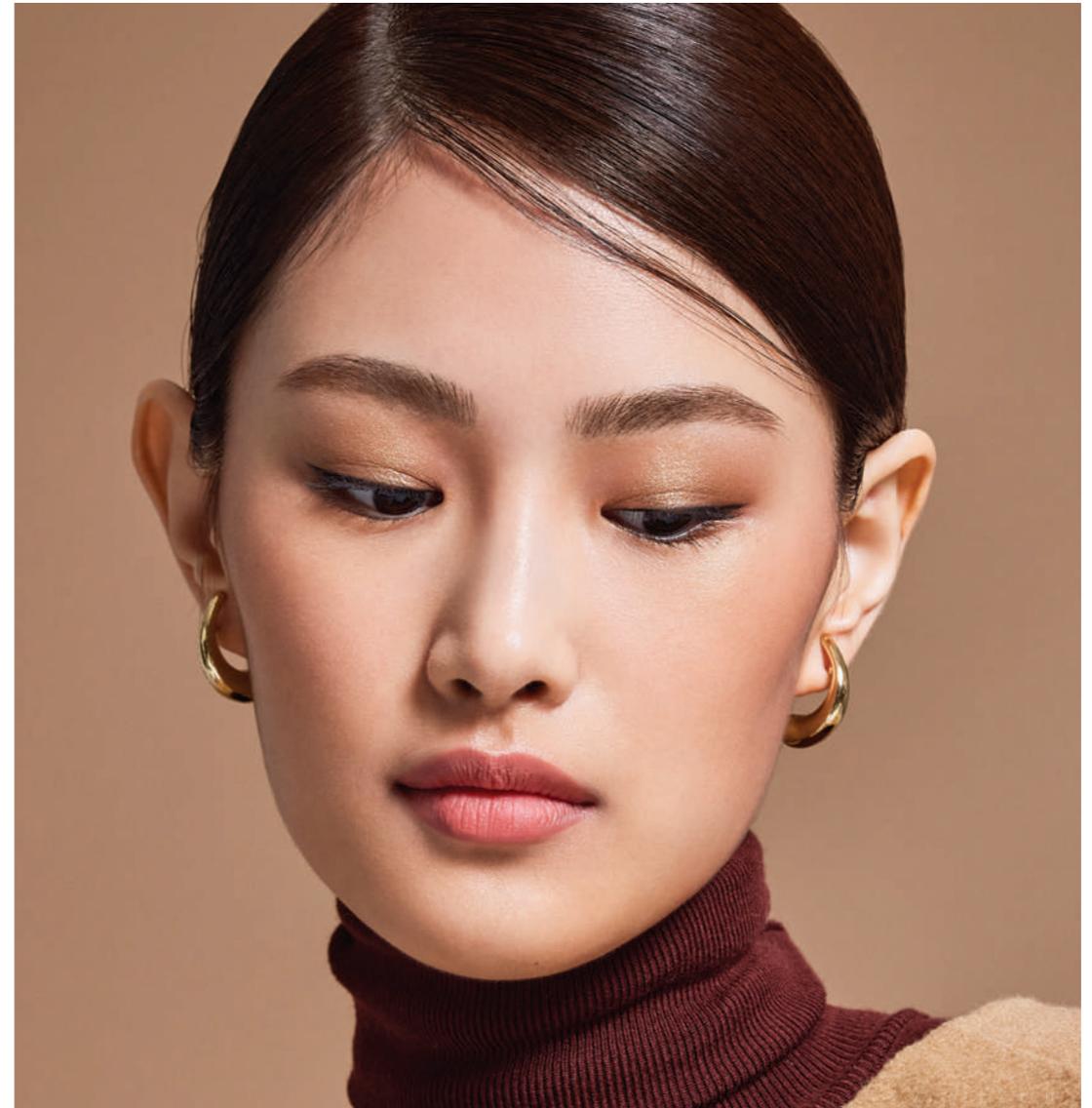
LEVEL 3 CAT'S EYELINE

슬릭 아이라인은 이번 시즌 다시 돌아온 거물급 트렌드. 여기에 짙은 벽돌색 립스틱을 칠하면 지금 가장 핫한 번트 브릭 makeup이 완성된다.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 SPF15/PA+, 35ml, 6만원.
헤라 이지 스타일링 아이라이너 #79 블랙, 2만8천원.
헤라 루즈 홀릭 크림 #348 로즈 파탈, 3g, 3만7천원.

- step 1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을 얼굴에 얇게 펴 발라 완벽한 피부로 정돈한다.
- step 2 헤라 이지 스타일링 아이라이너 #79 블랙으로 꼬리를 길게 빼 아이라인을 그린다.
- step 3 헤라 루즈 홀릭 크림 #348 로즈 파탈을 입술 라인까지 꼭 채워 바르면 끝.



LEVEL 4 GOLDEN EYES

금빛 펄이 은은하게 빛나는 핑크 브라운은 이번 시즌 가장 주목받는 아이 메이크업 컬러다. 그레데이션 아이 메이크업은 다소 난도가 높지만 아래 단계만 숙지하면 쉽게 따라 할 수 있다.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 SPF15/PA+, 35ml, 6만원.
헤라 섀도 듀오 #06 라이커블, 4g, 3만8천원.
헤라 스파이시 누드 블룸 매트 #252 누드 크림, 3.5g, 3만5천원.

- step 1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을 얼굴에 얇게 펴 바른다.
- step 2 헤라 섀도 듀오 #06 라이커블 중 미스티 로즈 컬러를 아이홀까지 바르고, 멜로우 컬러를 손가락으로 꼭꼭 누르듯 덧발라 밀도를 높인다.
- step 3 입술에 헤라 스파이시 누드 블룸 매트 #252 누드 크림을 발라 마무리한다.

PHOTOGRAPHY: CHOISEUNG HYUK(제웅),
MODEL: KIM KYU RI, MAKEUP: JAMIE YOON, JANE PARK (AMORE PACIFIC LUXURY MAKEUP TEAM),
HAIR: PARK CHANG DAE, STYLING: PARK MI KYUNG

건조한 피부를 위한 수분 레시피

환절기 피부 갈증을 완벽히 해소해줄 수분 충전 아이템을 소개한다.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CHOI HYANG JIN

“부드러운 젤 텍스처가 바르는 순간 피부에 속 흡수되며 수분을 공급하는 동시에 피부를 끈득하게 잡아준다.”

-<마리끌레르> 뷰티 디렉터 윤휘진

설화수 수분영양크림. 50ml, 7만원.

#꼭찬보습
#수분영양
#자음영양단™



설화수 수분영양크림

제품의 직관적인 이름 그대로, 피부에 부족한 수분과 영양을 가득 채워주는 크림으로 방문판매로만 만날 수 있다. 구기자, 흑두, 갈근, 꿀로 이루어진 자음영양단™이 건조하고 힘을 잃은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 사계절 메마르지 않는 촉촉하고 탱탱한 피부로 가꿔준다.

“텍스처와 향기, 그리고 탁월한 효능까지. 화장품의 덕목을 모두 갖춘 기본기가 탄탄한 제품이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최향진

아모레퍼시픽 보태니컬 수딩 토너. 200ml, 9만원.

아모레퍼시픽 보태니컬 하이드레이팅 플루이드. 160ml, 8만원.

#보태니컬파워
#왕대나무수액충전
#스킨컴포팅



BOTANICAL HYDRATING FLUID
FLUIDE BOTANIQUE HYDRATANT

BOTANICAL SOOTHING TONER
TONIQUE BOTANIQUE APAISANT

아모레퍼시픽 보태니컬 수딩 토너 & 하이드레이팅 플루이드

토너와 플루이드, 단 두 개만으로도 속부터 꼭 찬 수분감을 선사하는 제품. 인체의 수분과 닮아 피부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왕대나무 수액과 저분자 히알루론산을 함유해 이슬을 머금듯 촉촉한 피부로 가꿔주고 외부 자극과 마스크 착용 등으로 자극받은 피부를 편안하게 다스려준다.

“산뜻한 젤 제형이라 몇 번을 덧발라도 끈적이거나 답답하지 않다.”

-프리랜스 에디터 안새롬

헤라 아쿠아볼릭 하이드로-젤 크림, 50ml, 5만8천원.

- #청량수분충전
- #수분부족해소
- #아쿠아-토닝™



헤라 아쿠아볼릭 하이드로-젤 크림

연꽃 추출물, 베타인과 트레할로스 등 보습 성분이 피부에 수분 에너지를 집중 공급하고 피부 스트레스를 덜어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수분 충전 젤 크림. 수분 부족 현상을 완화하는 아쿠아-토닝™ 기술로 날마다 새로운 수분을 공급해 맑고 투명한 피부로 가꿔준다.

“피부가 한껏 예민해져 있을 때는 이 제품만 찾게 된다.”

-<마리끌레르> 뷰티 에디터 김보나

프리메라 알파인 베리 워터리 크림, 50ml, 3만9천원.
프리메라 알파인 베리 워터리 수딩 젤 크림, 50ml, 3만9천원.

- #데일리페어
- #진정회복크림
- #업그레이드수분력



프리메라 알파인 베리 워터리 크림 & 수딩 젤 크림

대한민국 대표 크림 프리메라 알파인 베리 크림이 업그레이드 되었다. 패키지는 물론 텍스처와 성분까지 더욱 강력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 국민 크림의 신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듯하다.



“빠르게 흡수되고
산뜻하게 마무리되는데,
스킨 하나만 발라도 촉촉함이
놀랄 만큼 오래 유지된다.”

-아트 디렉터 김경남

헤라 매니시모 인텐시브 스킨
100ml, 7만원.

#럭셔리맨스킨케어
#감각적인향기
#산뜻한수분감

헤라 매니시모 인텐시브 스킨

자작나무와 편백나무 우레 성분을 함유해 남성의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외부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스킨. 리코리스 우드의 부드럽고 감각적인 향과 오드 우드의 파워풀한 노트가 어우러져 피부에 풍부한 보습감을 전하고 고급스러운 향기를 입혀준다.

“10년 넘게 환절기마다 꾸준히 쓰는 제품. 수분 앰플 중 최고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이성진

리리코스 마린 하이드로 앰플 EX 오리지널.
(5ml×12ea)+마린 하이드로 인텐스 크림 8ml(중정용), 11만원.

#해양심층수
#초강력수분충전
#스페셜에디션



리리코스 마린 하이드로 앰플 EX 오리지널

수심 605m에서 깊어 올린 해양 심층수의 깊은 보습 효과로 피부에 빠르고 강력한 수분감을 전달하는 앰플. 물처럼 가벼운 텍스처라 바르자마자 피부에 쑥 스며들며 끈적임 없이 피부 갈증을 해소해준다.

집콕 에스테틱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며 자연스럽게 트렌드로 떠오른
홈 에스테틱. 몇 가지 노하우만 기억하면 편안한
내 침실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피부 관리실이 될 수 있다.

photographer KIM YEONG JUN(인물)
editor LEE SUNG JIN



헤라시그니아 크림
3백만 나르시스 식물 세포의
생명력을 피부에 전달해
젊은 피부로 가꿔준다.
60ml, 28만원.

믿음직한 제품을 고를 것

에스테틱을 고르는 기준은 보통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얼마나 숙련된 에스테티션이 관리해주는가, 그리고 어떤 제품을 쓰는가. 이 말은 세상에서 내 피부를 가장 잘 아는 자신이 에스테티션이 되는 홈 에스테틱에서는 제품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떨어진 피부 컨디션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효능을 인정받은 베스트셀링 제품들. 피부 상태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길 원한다면 영양분을 응축한 제품을 이용한 안티에이징 케어가 맞다. 이때 오랫동안 마사지하며 뭉친 근육을 풀거나 늘어진 피부를 끌어올려도 자극이 되지 않도록 평소보다 도톰히 바르는 것도 중요하다.



설화수 진설명작크림
고귀한 영지 버섯과
액티브인삼셀™에서 찾은 무한한
젊음의 에너지가 피부의 경이로운
생명력을 일깨우는 프레스티지
안티에이징 크림. 60ml, 80만원.



설화수 진설명작에센스
고귀한 영지 버섯과
액티브인삼셀™에서 찾은 무한한
젊음의 에너지가 절정의 피부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프레스티지
안티에이징 에센스.
40ml, 80만원.



헤라시그니아 앰플
피부 턴오버 주기에 맞춰 4주
만에 주름과 피뭉결, 탄력을
고루 개선해준다.
10.2g×4, 25만원.

스페셜 케어엔 스페셜 프로그램을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 가운데 현재 내 피부 상태에 필요한 것을 골라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에스테틱의 큰 장점. 하지만 홈 에스테틱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스킨케어 제품을 모두 구비하기는 쉽지 않다. 이럴 때 효과적인 방법이 내 피부가 원하는 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스페셜 제품을 여러 개 구비해 피부 상태

에 맞춰 골라 쓰는 것. 주름이 신경 쓰이는 곳에 집중적으로 안티에이징 효능을 발휘하는 제품이나 갑자기 떨어진 피부 컨디션을 빠르게 되돌려줄 앰플, 혹은 피부가 재생되는 밤 시간에 집중적으로 재생 효과를 발휘하는 나이트 케어 제품 등이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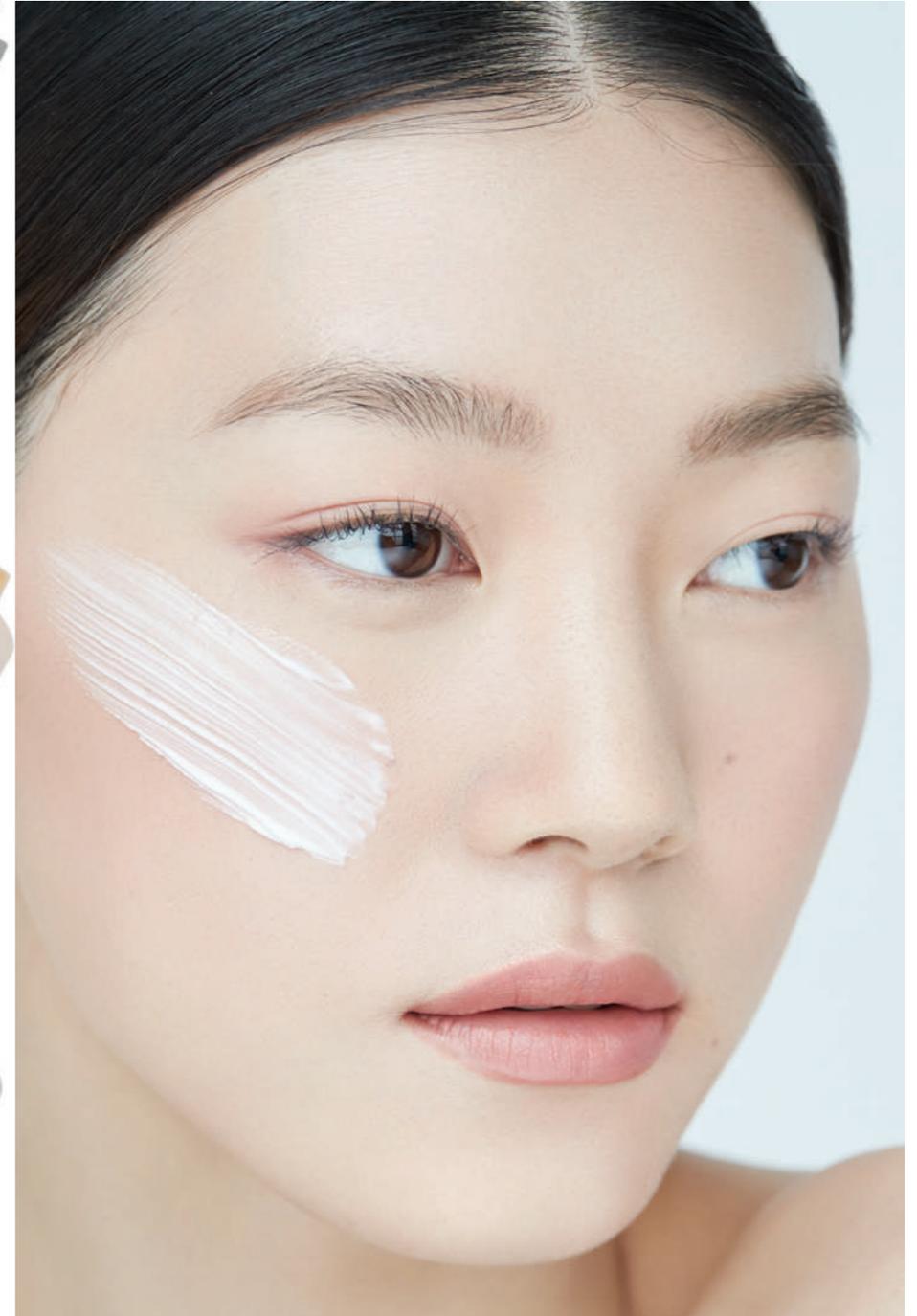
아이오페 레티놀 포 링클 0.3%
역대 최고의 고효량 레티놀
성분을 담은 제품으로 주름 개선
효과가 확실하다. 밤에 쓰는 것이
좋다. 20ml, 13만원.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저브 나이트 엘릭서**
다원의 보석, 차나무 씨의 미세
오일 드롭이 하루 밤 사이 풍성한
영양과 광채를 선사해준다.
3ml×16ea, 48만원.



설화수 명의본초앰플
8주 동안 집중적으로 바르면 지친
피부에 힘을 불어넣어 윤택한
상태로 되돌려준다. 8ml×4,
20만원.



기본부터 탄탄하게 가꾸려면 수분 케어를

긴 여름을 보내며 활기를 잃은 피부가 건조한 가을바람을 만나며 더욱 자극 받아 도무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좋다는 제품을 듬뿍 발라봐도 얼굴에서 윤기가 나지 않는다면 기본으로 돌아가 피부의 근간부터 다져야 한다. 바짝 메말라 갈라진 땅이 빗물을 잘 흡수하지 못하듯, 건조한 세포는 스킨케어 제품의 유효 성분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수분 공급이 시급하다. 메마른 세포에 수분을 채우고, 이 수분을 효과적으로 지켜줄 보습 성분이 풍부한 제품을 골라 피부 속 깊은 곳까지 촉촉하게 만드는 것이 홈 에스테틱의 기본이다. 보습 효과를 더욱 높이고 싶다면 물에 적신 수건을 따뜻하게 데운 스팀 타월을 활용해보자. 이를 얼굴에 올려 각질을 불린 뒤 자극 없는 필링제로 묵은 각질을 제거하고 순한 수분 공급 제품을 듬뿍 바르면 된다.



프리메라 알파인 베리 워터리 크림
피토테롤의 강력한 효능으로 피부 컨디션 회복, 진정 효과를 주는 크림. 50ml, 3만9천원.

리리코스 마린 하이드로 앰플 EX 스페셜 에디션
해양 심층수에서 추출한 성분을 담아 피부를 촉촉하고 건강하게 가꿔준다. 5ml×12+증정용 크림 8ml, 11만원.

프리메라 알파인 베리 워터리 수당 젤 크림
피부 온도를 -7.8℃ 낮춰주는 쿨링·진정 효능의 크림. 50ml, 3만9천원.

남자들도 홈 케어가 필요하다

급격히 달라지는 기후 때문에 피부가 자극을 받기 쉬운 이맘때, 홈 에스테틱은 남자들에게도 꼭 필요하다. 여름의 강렬한 자외선부터 건조한 가을바람과 코로나19로 상시 마스크를 끼는 환경까지, 이 모든 요소가 피부를 망가뜨려 노화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 긴 여름 동안 귀찮거나 피부가 갑갑하다는 핑계로 스킨 하나도 제대로 바르지 않았다면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기본은 지금의 피부 상태에 맞는 제품을 골라 쓰는 것. 이맘때면 얼굴이 땅기는 것이 당연하다거나 피부가 지성이라 번들거리는 건 어쩔 수 없다며 아무 화장품이나 쓰는 남성이 많은데, 이는 잘못이다. 지성과 건성, 안티에이징과 보습 등 피부의 유형과 관리 목적에 따라 맞는 제품을 골라 쓰는 것만으로도 남자들의 피부는 분명 달라질 수 있다. 스킨케어 제품을 바르며 처진 턱선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동작을 더하거나 손가락 끝으로 뺨 부위를 가볍게 두드리면 금상첨화.



헤라 홈 매니시모 인텐시브 에멀전 + 인텐시브 스킨
청량한 수분을 더해주는 스킨과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에멀전. 각각 100ml, 7만원.

헤라 홈 에센스 인 스킨 + 에센스 인 에멀전
피부에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스킨과 에멀전. 각각 125ml, 4만2천원 / 110ml, 3만8천원.

헤라 홈 블랙 퍼펙트 스킨 + 블랙 퍼펙트 로션 + 블랙 퍼펙트 플루이드
푸석한 피부에 생기를 더하는 안티에이징 스킨, 로션과 플루이드. 각각 120ml, 5만5천원 / 120ml, 5만5천원 / 120ml, 6만원.

바디 케어도 잊지 말 것

에스테틱에서 관리받으며 가장 기분 좋은 시간은 얼굴에 도통한 팩을 엮은 뒤 어깨나 다리를 주물러주는 손길을 느끼는 때가 아닌데, 우리 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실상 바디 피부인데, 얼굴에 집중하느라 바디 케어를 소홀히 한다면 자칫 각질이 하얗게 들뜨거나 심하면 가려울 수 있으므로 완벽한 홈 에스테틱을 위해서는 바디 케어도 잊지 말아야 한다.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씻어내는 바디 워시로 샤워한 뒤 보습 성분이 풍부한 바디 케어 제품을 도통하게 바르고 림프샘을 따라 가볍게 마사지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상쾌해진다. 달콤한 향이 나는 제품을 고르면 기분 전환 효과도 볼 수 있으니 일석이조.



프리메라 망고 버터 컴포팅 바디 워시 + 망고 버터 컴포팅 바디 로션 보습 효과가 탁월한 망고 버터 성분으로 피부를 촉촉하게 보호해주는 바디 워시와 바디 로션. 달콤한 향과 부드러운 텍스처가 매력적이다. 각각 380ml, 2만8천원 / 380ml, 3만2천원.



바이탈뷰티 명작수
인삼의 뿌리와 열매를 고루
담아 신체 내부로부터 생명력을
깨워주는 제품. 20g×50봉,
26만원.

PHOTOGRAPHER: CHOI SEUNG HYUK, CHOI MIN YOUNG(제품)
MODEL: JUNG CHEONG SOL,
MAKEUP: JAMIE YOON, AREUM CHO, LUCAS LEE (MORE PACIFIC LUXURY MAKEUP TEAM),
HAIR: LEE HYE YOUNG, STYLING: PARK MI KYUNG.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골드
식사량이 많거나
간식, 야식 섭취를
한 날 챙겨먹으면 유기농
녹차 카테킨이
체지방과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를 도와 대사를
원활하게 해준다.
520mg×90정, 5만5천원.



마무리는 이너 뷰티 케어로

심신이 릴렉스되며 혈액순환이 원활해진 이 때 집콕 에스테틱의 가장 슬기로 운 마무리는 이너 뷰티 케어다. 활동량이 떨어지면서 자연히 피로를 느끼기 쉬운 신체 환경에 항산화와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명작수로 활력과 에너지를 불어넣어보자. 명작수를 따뜻한 물에 타면 자연의 건강한 향을 배가시켜주어 더욱 풍부하게 명작수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활동량이 줄어 대사 건강이 저하되기 쉬운데, 식사나 간식, 야식 후에 메타그린을 섭취하여 무거워진 몸을 좀 더 가볍게 해보자. 체지방과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카테킨과 비타민,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비타민D가 주원료로 함유되고, 부원료로 녹차유래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다. 이너뷰티 제품으로 건강 밸런스를 챙긴다면, 다음 날 좀더 가볍고 활력 있는 신체리듬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VD**

럭셔리 안티에이징의 정수

이름만 들어도 믿음이 가고, 그 효능에 기대감이 부푸는 제품이 있다. 설화수의 진설 라인 이 그러하다.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CHOI HYANG JIN

설화수 진설에센스
피부 볼륨감 증대

97%

피부 생기와 활력 증진

100%

잔주름 완화

97%

진설에센스 기준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
조사 대상: 40~55세
한국인 여성 30명
조사 기간: 2018년 9월
5일~10월 4일(4주)
조사 기관: (주)이노컴퍼니,
9점 척도

*2012년 진설 기준

설화수
진설에센스 & 진설크림

①

강인한 생명력의 근원, 적송

천 년의 시간을 견디는 적송, 그 강한 생명력으로 노화된 피부의 시간을 뛰어넘어 새롭게 시작되는 피부의 시간.

②

안티에이징 결정체, Red Treasure™

11단계 163시간의 정성으로 얻어낸 66배* 강력해진 안티에이징의 정수.

③

시간 앞에 견고히 빛나는 피부, 진설

피부 본연의 생명력을 강화시켜주고, 탄력, 생기, 주름을 다각도로 개선하는 입체 안티에이징 케어.

설화수 진설크림
안티에이징 결정체인 Red Treasure™와 진귀한 산양삼 추출물을 담은 크림이 피부 근원의 힘을 길러 자생력을 강화시켜주는 에너지 안티에이징 케어. 60ml, 47만원.

설화수 진설에센스
안티에이징 결정체인 Red Treasure™와 진귀한 산양삼 추출물을 담은 에센스가 불균형한 피부 탄력, 생기와 주름을 다각도로 개선해주는 360도 입체 안티에이징 케어. 50ml, 38만원.

“안티에이징 에센스의 전설이자 정수. 제값을 하는 제품이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최향진

“피부가 푸석할 때 바르면 곧바로 피부결이 매끈하고 쫘득해진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영

“일단 손대면 절대 끊을 수 없는, 마법 같은 제품.”

-<마리골레르> 뷰티 디렉터 윤휘진

환절기 노화 고민 해결사

피부가 거칠어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환절기. 피부 노화의 시작을 막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현명하고
아낌없는 투자가 필요하다. 헤라 시그니아 라인은 환절기 피부의 구세주가 되어줄 것이다.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CHOI HYANG JIN

헤라 시그니아 세럼
사용한 지 6주 만에 피부
윤기와 탄력, 균일도를
개선해주는 궁극의
안티에이징 세럼. 50ml,
22만원.

헤라 시그니아 에멀전
나르시스 워터™의
생명력을 담은 제형으로
탄탄하게 빛나는 피부로
가꿔준다. 150ml, 9만원.

헤라 시그니아 크림
나르시스 식물세포
3백만 개의 생명력이
젊은 피부로 가꿔주는
궁극의 안티에이징 크림.
60ml, 28만원.

**헤라 시그니아 아이
트리트먼트** 눈가에 생기를
불어넣는 토탈 안티에이징
아이 크림. 30ml, 20만원.

헤라 시그니아 앰플
4주 동안 꾸준히 바르면
피부가 놀랄 만큼 생기가
돌고 탄력이 붙는다.
10.2g×4, 25만원.

헤라 시그니아 워터
아침 이슬처럼 신선한
나르시스-듀™ 제형으로
피부를 맑게 정화하는
토탈 안티에이징 워터.
180ml, 9만5천원.

헤라 시그니아

①

강력한 생명력을 지닌 나르시스 식물세포

메마른 땅에서도 구근에 물을 주면 싱싱하게 피어나는 강인한 수선화.
헤라는 수선화 식물세포에 대한 연구 끝에 크림 한 병에 3백만 개의
나르시스 식물세포를 담아 범접하기 어려운 안티에이징 효과를 제공한다.

②

바르는 순간 촉촉하게 스며드는 깊은 보습

헤라 시그니아 라인은 제품마다 최적의 텍스처로 고안했다. 피부에
부드럽게 밀착하며 녹아드는 고농축 질감의 텍스처가 끈적이지
않으면서도 피부를 탄탄하게 잡아준다.

③

임상으로 검증된 확실한 피부 개선 효과

헤라 시그니아 라인은 탄력, 윤기, 영양, 팔자주름, 눈가 주름,
미간 주름 등 노화의 신호에 확실히 대응해 젊고 생기 넘치는
피부로 가꿔준다.

세럼-윤기 개선

15.0%*

크림-팔자주름 완화

21.3%**

앰플-주름 깊이 완화

5.77%***

*시험 대상: 성인 여성
23명(49.0±3.7세)
시험 기간: 2014년 9월
15일~12월 12일
시험 기관: (주)엘리드

**시험 대상: 23명
시험 기간: 2014년 9월
22일~11월 7일
시험 기관: (주)엘리드

***시험 대상: 성인 여성
23명(43.6±3.8세)
시험 기간: 2015년 10월
20일~11월 9일
시험 기관: (주)더마프로

“수선화 향에 압도된다.
뚜껑을 여는 순간부터
힐링되는 느낌.”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영

“바르자마자 보들보들한
피부를 만져보면 계속 바르지
않을 수가 없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김희진

“효과가 우수한 안티에이징
제품은 무겁고 번들거린다는
편견을 완전히 깨준 제품.”

-<마리끌레르> 뷰티 디렉터 윤휘진

보석보다 눈부신 광채의 탄생

작년 10월, 첫 출시 후 '2주 만에 완판'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타임 레스폰스 나이트 엘릭시어가

2020 에디션으로 출시된다. 건조하고 푸석해진 환절기 피부를 꼭 찬 영양과 보석 광채로 채워줄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 것.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CHOI HYANG JIN

19년 첫 출시

2주 완판*

3ml 한 통의 미세 오일 드롭

1만개 이상

초가을부터 겨울까지

1주일, 4번

*19년 방판 종료 출시 후,
회사 판매 기준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저브 나이트 엘릭시어

①

다원의 보석, 차나무 씨 오일

다원의 보석이라 불리는 차나무 씨에서 추출한 수만 방울 이상의 미세 오일 드롭을 AbsoluTea™와 함께 담아내어 나이트 엘릭시어 단 한 통의 사용만으로도 하루 밤 사이 확 달라진 보석 광채 피부를 실감하게 된다.

②

아름다움의 절정, 골드 드롭

작은 한 통에 미세한 골드 드롭이 아름답게 분산되어 있어 제품을 맞이하는 첫 순간부터 잊지 못할 아름다운 럭셔리 스킨케어를 경험하게 된다.

③

1년 중, 눈부신게 빛나는 시간

일주일당 4번, 매일 밤 시트 마스크 대신 꾸준히 사용하면 1년 중 가장 건조한 초가을부터 겨울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광채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저브 나이트 엘릭시어 매년 10월 단 한 번 출시하는 나이트 전용 마스크. 나이트 엘릭시어 반 통을 얼굴에 바르고 마사지한 뒤 잠들면 다음 날 아침 눈부신 보석처럼 광채로 빛나는 피부를 확인할 수 있다. 3mlX16ea, 48만원대.

“오일 특유의 걸도는 느낌이 풍부한 영양과 광채를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제품.”

-뷰티 콘텐츠 디렉터 이성진

“몇 년 만에 폭 자고 일어난 듯 눈부신 광채와 팽팽한 탄력을 확인했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김희진

“여름에도 건조하던 피부가 놀랄 만큼 촉촉하고 편안해졌다.”

-프리랜스 에디터 안새롬

두피부터 모발 끝까지 시원하고 촉촉하게 탈모 완화 기능성 케어

탈모가 유난히 심한 환절기에는 두피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성분부터 기능까지 꼼꼼하게

골라 만든 프리메라 탈모 완화 기능성 샴푸와 로션으로 젊고 건강한 모발로 가꿔보자.

프리메라 그린티 바이옴 스칼프 쿨링 샴푸 & 헤어 모이스처라이저

①

두피 미인을 만들어줄 두피 케어 **삼총사 녹차, 유산균*, 검정콩** 식약처 탈모완화기능성화장품 주성분으로 보고된 녹차 추출물, 두피 장벽 강화와 진정에 효과적인 유산균*, 두피 보습과 항산화기능의 검정콩 추출물, 두피 안티에이징을 도와주는 어성초&작약 추출물까지. 두피에 깊은 영양과 탈모 완화를 도와 두피부터 건강하게 풍성한 모발 관리를 시작할 수 있다.

*유산균발효용해물 : 락토바실러스발효용해물

②

간편하게 엄선한 9free system의 성분과 시원한 향

탈모와 건조해지는 두피가 걱정이라면 어디에서 유래한 계면활성제인지, 두피 pH와 유사한 약산성 내용물인지 확인할 것. 프리메라가 보장하는 9free system(실리콘 오일, 설페이트계계면활성제-샴푸, PEG계 계면활성제-모이스처라이저, 동물성 원료, 광물성 오일,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이미다졸리디닐우레아, 트리에탄올아민, 합성색소, 파라벤)으로 무첨가 성분을 확인하자. 시트러스 허벌 계열의 힐링 포레스트 향이 주는 상쾌함은 간편하게 고른 이에게 주는 힐링 같은 보너스.

③

두피부터 모발까지 2step으로 매일 간편하게 탈모 전문 케어

코코넛 유래 계면활성제의 풍성한 거품과 멘톨, 보습 성분으로 린스 없이도 부드럽지만 시원하게 씻어주는 샴푸, 두피부터 모발까지 촉촉하게 보호해주면서 4중 레이어 코팅 기술로 끈적임 없이 윤기 있게 스타일을 살려주는 헤어 모이스처라이저. 두피부터 모발까지 올인원 케어로 간편하게 매일매일 전문적인 두피 모발 케어를 할 수 있다.

샴푸
평소보다 모발에 탄력이 느껴진다

90.3%

샴푸
두피가 건조하지 않고 촉촉하다

96.8%

샴푸 & 모이스처라이저
모발에 바를 때 모발이 덜 빠지는 느낌이다

90.3%*

*샴푸&모이스처라이저
고객 블라인드 테스트/
시험대상 : 40세~55세
탈모 & 볼륨 고민 한국인
여성 31명 / 시험 기간 :
2020년 8월 24일~8월
29일 / 시험 기관 :
(주)뷰티링크파트너스

프리메라 그린티 바이옴 스칼프 쿨링 샴푸
감을 때는 풍성한 거품으로 린스 없이도 매끄럽게 감기면서 건조 후에는 개운하게 두피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탈모 완화 기능성 샴푸. 380ml, 3만7천원.

프리메라 그린티 바이옴 스칼프 헤어 모이스처라이저
실리콘 오일 무첨가에 그린티 바이옴 성분이 샴푸의 10배 함유로 두피부터 모발 끝까지 올인원 케어가 가능한 탈모 기능성 두피모발 전용 수분 로션. 150ml, 3만원.

“린스를 하지 않았는데도 모발이 엄청 부들부들하다.”

-뷰티콘텐츠 디렉터 김희진

“샴푸와 헤어 로션, 2단계만으로도 폴코스모 케어를 받은 듯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최향진

“두피가 놀랍도록 견 강해지는 느낌. 축 처졌던 모발에 힘이 생긴 듯하다.”

-프리랜서 에디터 안새롬



젊은 눈매를 위한 처방전

간주름과 부기, 화장을 해도 잘 가려지지 않는 칙칙한 다크서클까지. 나이는 눈가에 가장 먼저 드러난다.

생기 잃은 눈가에 활력을 불어넣는 고농축 아이 케어 크림부터 매일 하면

좋은 마사지 방법까지. 눈가를 젊게 유지하는 아이 케어 노하우를 공개한다.

editor AHN SAE R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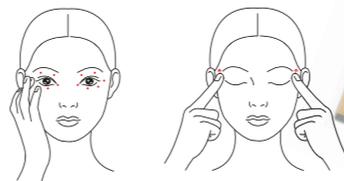
STEP 1

눈가의 부기를 내리고 다크서클을 예방하라

어둡고 피곤해 보이는 인상으로 만드는 다크서클은 한번 생기면 없애기 어려우므로 예방이 중요하다. 우선 다크서클의 원인을 알아야 하는데, 이는 피부의 색으로 식별할 수 있다. 짙은 갈색 다크서클은 자외선, 검푸른 다크서클은 혈액순환 장애가 원인이다. 자외선으로 인한 다크서클은 눈에 자극을 주지 않는 순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면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없애기 어려운 것은 검푸른 다크서클로 눈가의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어 아침저녁으로 통통 붓고 간지러운 증상이 지속되거나 눈가 주변 체액과 모세혈관의 흐름이 막히며 탁한 푸른색을 띠는 것이다. 이런 증상이 지속되면 눈 밑 지방이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아이백 현상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다행히 아침저녁으로 꾸준히 수분을 공급하고 눈가를 마사지하면 이러한 다크서클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다크서클은 몇 가지 생활 습관만 개선해도 한결 완화된다. 우선 눈가를 비비는 습관을 없앨 것. 눈가를 비비면 얇은 눈가 피부 밑으로 혈액이 급격하게 몰리며 다크서클이 심해질 수 있다. 식생활 개선도 중요한데, 빵이나 파스타 등 밀가루 음식 섭취나 과도한 음주는 체내 수분을 빼앗아 부종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혈액순환을 돕는 비타민 K를 함유한 브로콜리, 케일 등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

Tip

경혈을 자극하는 부기 제거 마사지



- 1 중지나 약지로 소량의 아이 크림을 부드럽게 바른다.
- 2 눈고리에서 1.5cm 정도 떨어진 부분(동자료)을 검지로 누르며 관자놀이 쪽으로 당기는 느낌으로 3초간 지압한다.



- 3 눈 안쪽과 콧대가 만나는 부분(정명)을 검지로 미는 느낌으로 3초간 지압한다. 양쪽 모두 실시한다.
- 4 눈썹 앞머리 아래에 솟 들어간 부분(찬죽)을 엄지로 3초간 지압이 눌러준다.



프리메라 오가니언스 아이크림
발아 흑미 추출물의 영양 성분이 눈가에 풍부한 보습과 활력을 부여한다.
30ml, 3만8천원.

설화수 진설아이크림
안티에이징의 결정체 Red Treasure™에 복령 성분을 더해 눈가 주름을 개선하고 피부 힘을 길러주어 탄탄한 눈매로 가꿔주는 토달 안티에이징 아이 케어.
5ml, 27만원.



설화수 자음생 아이에센스 마스크
인삼 결정체를 담은 더블 래핑 하이드로겔 시트™가 눈가를 생기 있고 탄력 있게 만들어준다.
8매, 7만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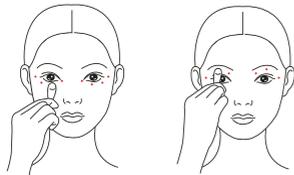
STEP 2

수분과 탄력을 더해 눈가 미세 주름을 잡아라

동양인 중 많은 사람이 피부가 눈머리를 덮고 있어 몽고주름이 생기거나 눈꺼풀이 쉽게 처져 눈고리에 잔주름이 잡힌다. 또 눈을 뜨는 힘이 선천적으로 약해 이마 근육을 위로 올려 눈을 뜨거나 미간을 찌푸리는 습관이 생기기 쉽다. 그런 만큼 수분과 탄력을 더해줄 데일리 아이 케어가 필수다. 우선 아이 메이크업을 전용 클렌저로 자극 없이 부드럽게 지운 뒤 아이 케어 제품을 눈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도록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바르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어떤 제품이 효과적일까? 아이 세럼과 크림의 차이는 페이스 세럼과 크림의 차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아이 세럼은 농축된 성분으로 특정 집중 케어에 효과적이고, 아이 크림은 피부에 흡수된 성분이 좀 더 오래 지속되도록 보호막을 형성하는 것. 각자 피부 타입에 맞는 제형을 고르면 피부에 흡수되는 제품의 양은 한정적이므로 많이 바르는 것보다 소량을 마사지하며 바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미세 주름이 많은 눈가는 목직하고 꾸덕꾸덕한 크림이나 밤 타입보다는 아이 세럼이나 질감이 가벼운 아이 크림을 바르는 것이 효율적이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뭉친 근육을 풀고 지압하며 마사지는 것도 눈가 탄력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눈가가 심하게 처진 경우에는 이마와 미간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다. 눈 밑과 눈두덩, 관자놀이와 광대뼈 윗부분, 버터플라이 존까지 넓게 퍼 발라 마사지하면 눈가 탄력을 전체적으로 높일 수 있다.

Tip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탄력 케어



- 1 눈 아래와 눈두덩이에 아이 에센스나 크림을 짙게 바르면 뒤 눈 아래 뼈가 만져지는 부위를 애플리케이션으로 지그시 누르듯 마사지를 한다.
- 2 눈 밑을 지나 눈썹의 튀어나온 부분 바로 아래까지 혈을 지그시 누르며 눈가 근육의 긴장을 풀어준다.



- 3 눈을 감고 눈꺼풀을 미간부터 대각선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린다.
- 4 애플리케이션으로 눈 밑에 작은 원을 그리며 뭉친 근육을 풀어준다.



설화수 진살아이에센스 세트
안티에이징의 결정체 Red Treasure™에 송이추출물을 더해 다크서클과 혈행 고민에 대응하여, 맑고 깨끗한 눈매로 가꾸어주는 눈가 피부 컨디션 케어. 25ml, 27만원.

프리메라 와일드 씨드 펴밍 아이 크림
남작콩의 효능을 담아 눈가에 섬세하게 밀착되어 견고한 탄력을 부여한다. 25ml, 5만5천원.

헤라 시그니아 아이 트리트리먼트
나르시스 식물세포가 눈가 O 라인의 탄력을 집중케어해 촉촉하고 탄탄하게 유지해준다. 30ml, 2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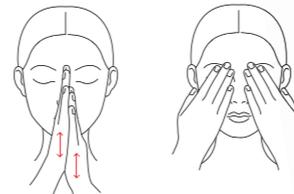
STEP 3

혈액순환을 촉진해 눈가에 활력을 불어넣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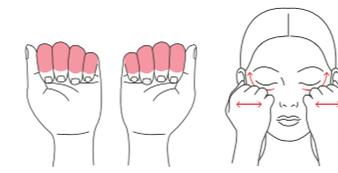
얼굴에서 피부가 가장 얇고 여린 곳이 바로 눈가. 얼굴의 다른 부위에 비해 5분의 1 정도로 피부가 얇은 눈 밑은 콜라겐 등 탄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성분이 자리 잡기 힘들고 쉽게 처질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섬세한 안면 근육이 움직이고 미세 주름의 강력한 원인 중 하나인 중력까지 가세하면서 노화가 빠르게 진행된다. 특히 눈 밑이 울룩불룩해 보이는 아이백은 최근 많은 여성이 고민을 토로하는 증상. 아이백이란 눈 밑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노폐물이 쌓이고 부종이 나타나 눈 밑 피하지방이 돌출하는 현상. 심한 스트레스나 피로뿐 아니라 고개를 숙여 스마트폰을 보거나 엎드려 자는 습관도 아이백 증상을 가속화하는 주요한 원인이다. 눈꺼풀 안쪽을 절개해 우물투물하게 보이는 지방을 제거하고 재배치하는 시술이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지 않으면 무용지물. 콜라겐을 함유한 아이 세럼이나 녹차, 카페인 같은 혈액순환에 도움 되는 안티에이징 성분이 든 크림을 바르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마사지를 병행하면서 시간을 들여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높으므로 아래 마사지를 익혀 꾸준히 해볼 것.

Tip

아이백 예방 마사지



- 1 눈 밑에 아이 크림을 펴 바른 뒤 손바닥을 비벼 열을 낸다.
- 2 따뜻한 두 손바닥을 눈 위에 올려 지그시 누르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크림의 흡수를 촉진한다.



- 3 주먹을 가볍게 쥐고 손가락 둘째 마디의 평평한 부분을 눈 아래에 댄다.
- 4 지그시 누르며 주먹을 좌우로 가볍게 움직인다. 관자놀이까지 조금씩 이동하며 3~5회 반복한다.

PHOTOGRAPHY: WWW.GETTYIMAGESKOREA.COM, CHOI SEUNG HYUK(최승)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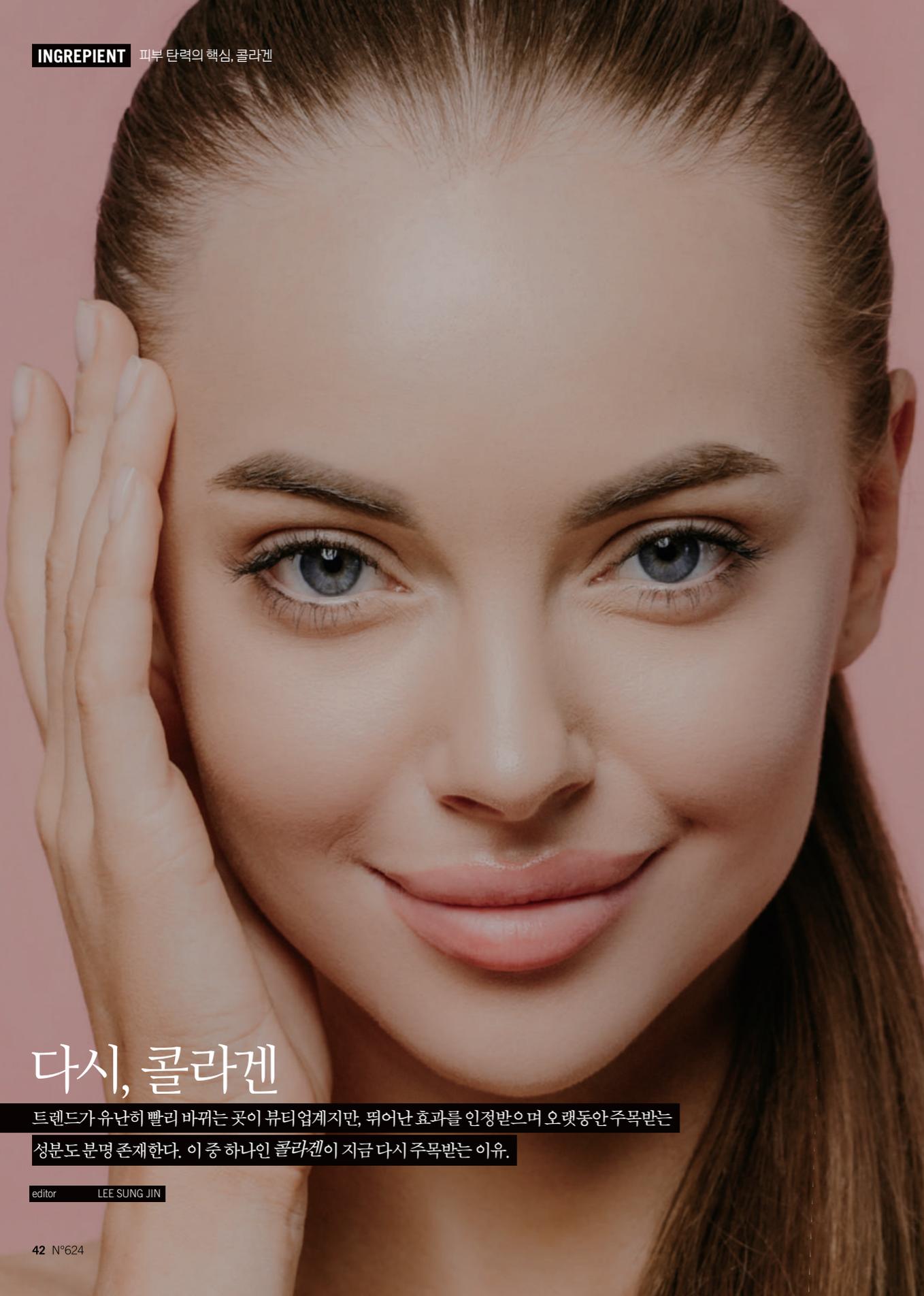
에이지 어웨이 콜라제닉 아이 크림 멜팅 밤 타입의 텍스처로, 피부가 여린 눈가에 밀착해 탄력 있게 가꿔주는 눈가 케어 아이 크림. 25ml, 10만원.

에이지 어웨이 콜라제닉 세럼 콜라겐 큐브와 피부 활성 성분이 탱탱한 탄력감을 선사해, 피부가 손끝에 닿는 느낌부터 달라진다. 분품 40ml, 12만원 / 리필 40ml, 10만원.

아이오페 레티놀 포링글 0.3%
고함량 레티놀 성분이 눈가와 미간의 깊은 주름을 완화한다. 20ml, 13만원.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아이 리저브 크림
얇고 예민한 눈가를 생기 있게 가꿔주는 친밀 성분의 안티에이징 아이 크림. 15ml, 29만원.





다시, 콜라겐

트렌드가 유난히 빨리 바뀌는 곳이 뷰티업계지만, 뛰어난 효과를 인정받으며 오랫동안 주목받는 성분도 분명 존재한다. 이 중 하나인 콜라겐이 지금 다시 주목받는 이유.

editor LEE SUNG JIN

안티에이징이 스킨케어에서 부동의 화두로 자리 잡으며, 덩달아 꾸준히 주목받는 것이 콜라겐이다. 화장품의 주성분으로 종종 등장하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먹는 이너 뷰티 제품으로도 관심을 모으는 상황. 피부는 표피와 진피, 피하지방의 3개 층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가운데 약 90%를 차지하는 진피의 주요 성분 중 하나가 바로 콜라겐 섬유다.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드는 데 일등 공신이지만, 문제는 노화와 함께 급격히 사라지는 데 있다. 20대부터 매년 1%씩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므로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을 막기 위해서는 화장품 등의 보조 수단으로 꾸준히 채워줘야 하는 것. 이렇게 중요한 성분이니만큼 수많은 코스메틱 브랜드에서 앞다투어 콜라겐 관련 제품을 선보여왔다. 헤라 역시 2008년 V콜라제닉 세럼을 출시하며 윤곽을 날렵하게 살려주는 제품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리고 올해, 헤라는 오랫동안 쌓은 안티에이징 노하우를 집약한 5세대 영양 공급 및 탄력 강화 제품군인 에이지 어웨이 콜라제닉 라인을 선보인다. 에이지 어웨이 콜라제닉 라인에 사용된 핵심 기술 중 하나는 콜라겐을 지속적으로 방출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콜라겐 큐브. 피부 활성 성분 ERP에 콜라겐 큐브를 더한 콜라제닉 ERP 기술로, 지친 피부에 생기고 탱탱한 탄력감을 선사한다. 플럼핑 효과를 돕는 히알루론산을 더한 점도 눈에 띈다. 콜라제닉과 결합해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히알루론산 역시 40대에 접어들며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해 5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가량으로 농도가 낮아지는 성분. 에이지 어웨이 콜라제닉 라인은 피부 표면을 촉촉하게 하는 고분자 히알루론산과 피부 속 깊은 곳까지 수분을 채우는 저분자 히알루론산을 더해 끈직한 보습 보호막을 형성한다. 여기에 땅속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트러플을 발효해 피부 상태를 개선하는 트러플 유래 효모 추출물까지 더한 에이지 어웨이 콜라제닉 라인은 피부가 파인 주름을 즉각 채우는 필러 시술에서 착안한 만큼 바르는 즉시 손끝으로 효과를 느낄 수 있다. 마시는 콜라겐의 인기 역시 꾸준히 높아지고 있

다. 식품에 들어 있는 콜라겐은 분자량이 크고 구조가 복잡해 우리 몸속에 흡수되기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를 정제한 이너 뷰티 제품을 통해 안정적으로 섭취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 바이탈뷰티의 슈퍼콜라겐은 흡수가 빠른 저분자 피쉬 콜라겐 3300mg에 유산균 녹차 발효 추출 분말과 비타민 C, 비오틴 등이 함께 함유되어 있다. 상큼한 과일 맛이 나는 데다 하루 한 번 마시면 되는 간편한 섭취법도 인기의 요인. 2020년 5월 기준 아모레퍼시픽 공식 온라인몰 바이탈뷰티 제품 가운데 재구매율 1위, 바이탈뷰티 전체 제품 가운데 재구매율 2위를 차지할 만큼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1D**

1 에이지 어웨이 콜라제닉 세럼 콜라겐 큐브와 피부 활성 성분이 탱탱한 탄력감을 선사해, 피부가 손끝에 닿는 느낌부터 달라지는 영양 탄력 세럼. 본품 40ml, 12만원 / 리필 40ml, 10만원.
2 헤라 에이지 어웨이 콜라제닉 워터 피뮷결을 촉촉히 채우는 도통한 텍스처로, 피부를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다져 부드럽고 촉촉하게 가꿔주는 윤기 부스팅 워터. 150ml, 5만5천원.
3 바이탈뷰티 슈퍼콜라겐 저분자 피쉬 콜라겐을 가득 담은 마시는 콜라겐. 흡수 빠른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로 속부터 꼭 채우자. 750ml(25ml×30캡슐), 10만원.

4 에이지 어웨이 콜라제닉 크림 탄력 있는 포물러로 피부를 감싸 탄력 보습막을 형성하고, 벨벳처럼 부드럽게 정돈해주는 탄력 코팅 크림. 본품 50ml, 12만원 / 리필 50ml, 10만원.
5 에이지 어웨이 콜라제닉 에멀전 수분과 유분을 최적의 비율로 배합해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고, 피부에 영양을 공급해 컨디션을 개선하는 제품. 120ml, 6만원.
6 에이지 어웨이 콜라제닉 아이 크림 멜팅 밤 타입의 텍스처로, 피부가 여러 눈가에 밀착해 탄력 있게 가꿔주는 눈가 결 케어 아이 크림. 25ml, 10만원.



PHOTOGRAPHY: WWW.GETTYIMAGESKOREA.COM, PARK JAE YOUNG(제공)

구달 파리의 베스트 셀러인 뽀뽀 쉐리, 페뉴 드 스와레, 에뚜왈 뉘세 가지 향수를 모두 즐길 수 있는 유니버스트리오 세트. 사랑스러운 향의 뽀뽀 쉐리와 매력적인 향의 페뉴 드 스와레,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에뚜왈 뉘세를 그 날의 룩과 무드에 따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트레블 케이스가 포함돼 있어 휴대하기도 편하다. 그 자체로도 선물 포장되어 있는 듯한 고급스럽고 우아한 패키지로 선물용으로도 제격이다.

구달 파리 유니버스트리오 세트, 10ml×3개, 9만8천원 (방문판매 전용).

가벼운 터치로도 부드럽게 스며드는 산뜻한 제형의 바디로션. 꽃밭에 풍성하게 흐드러진 꽃들의 향기와 달콤한 과일, 신선한 풀 내음이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화이트 머스크 베이스 향이 시간이 지날수록 부드럽게 남아 잔향이 편안하다.

헤라 더시그니처 퍼퓸드 바디누드 로션, 200ml, 6만5천원.

모던하고 감각적인 소프트 우디 & 아로마틱 계열의 중성적인 향으로 남녀 모두에게 잘 어울리고, 커플 향수로 함께 사용하는 것도 추천한다. 홍차의 풍부한 향을 연상시키는 페티그레인과 마떼 잎의 향이 프레시하지만 부드러운 첫 인상을 선사하고, 뒤로 갈수록 섬세하고도 묘하게 이어지는 가족의 향이 어우러져 거부할 수 없는 치명적인 매력을 완성한다.

구달 파리 듀엘오드 퍼퓸, 100ml, 21만4천원.

불쾌한 체취는 없애고 좋은 향으로 감싸주는 바디 퍼퓸. 들뜬에 핀 야생 장미의 우아한 향을 담은 10은 가을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부드러운 향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은은한 로즈 향이 풍겨 향수 못지않은 잔향을 즐길 수 있다.

프라더어 바디오드 퍼퓸, 100ml, 6만7천원.

시아버터가 보습막을 형성해 피부를 오래도록 촉촉하게 유지해준다. 살에 닿자마자 부드럽게 발리며 속 스며들어 끈적이지 않는 사용감이 매력적이다. 살구와 레몬의 싱그럽고 달콤한 프루티 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드러운 로즈와 바닐라, 머스크 향이 강해져 관능적이고 고혹적인 잔향을 남긴다.

헤라 지일 블루밍 퍼퓸드 바디로션, 250ml, 5만원.

가을을 닮은 향

무더위가 물러가고 맑은 가을. 여름에 쓰던 산뜻한 향이 가볍게 느껴진다면 **차분한 플로럴 계열이나**

오묘한 머스크 향을 남기는 향수나 바디로션으로 분위기를 바꿔보는 건 어떨까? 가을을 떠올리게 하는 **고혹적인 향이**

새로운 계절의 도래를 느끼게 할 것이다.

붉게 물든 단풍잎이 떠오르는 강렬한 레드 보틀이 인상적인 지일, 향 역시 고혹적이고 신비로운 매력을 풍기는 머스크 베이스로 가을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향수다. 열정, 열의를 뜻하는 지일(zeal)이라는 이름처럼 파우더리한 머스크 베이스에 그린, 플로럴 계열의 향이 어우러져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여성의 삶을 대변한다.

헤라 지일 오데 퍼퓸, 40ml, 4만2천원.

구르망 시프레 계열의 향수. 사탕처럼 달콤하면서도 관능적인 아이리스와 고혹적인 파출리 향이 은은하게 맴돈다. 첫 향은 시원한 풀 내음이 감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부드러우면서도 묵직하게 남는 잔향이 가을에 어울리는 따뜻한 느낌을 자아낸다.

구달 파리 페뉴 드 스와레 오드 퍼퓸, 30ml, 11만8천원.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AHN SAE ROM

생생한 제품 평가

프리메라의 리페어빈 시카에센스대용량기획 세트를 사용해본 품평단 10인의 솔직한 후기.

@princess_sooha

순한 스킨케어 하면 역시 #프리메라. 활절기에 더욱 예민한 건성 피부에 그만이에요. 제형도 촉촉하게 스며드는데 무겁지 않고 산뜻해요.



@lindsey_eo

프리메라 시카에센스는 제 공명템일 정도로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팜핑 타입이라 위생적이고 무엇보다 순하고 피부에 산뜻하게 흡수되는 느낌이 최고죠.



@ryo_7

<오늘의 좋아하는 것들>의 김이랑 작가님과 컬래버레이션으로 출시한 시카에센스 + 크림! 시카 성분이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고, 피부에 수분도 채워줘서 좋아요.



@_so_nari

대용량이라서 매일매일 넉넉하게 쓰기 좋은 제품이에요. 귀여운 일러스트 스티커도 있어서 다이어리 꾸미는 재미도 더해줘요.



#피부진정시카
#수분진정에센스
#민감피부에센스

@k.susuu

인생 시카, 리페어빈 시카에센스가 대용량으로 출시됐네요. 시카에센스에 크림까지 있는 한정판 패키지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rohmiyoun

자기 전에 바르고 아침에 일어나면 꿀광 피부로 변해 있어 자꾸만 손이 가는 시카에센스! <오늘의 좋아하는 것들>과 함께한 아끼지키한 스티커도 담겨 있어서 더 맘에 쏘옥! 선물하기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zzangse

8월 말이 되자 얼굴이 건조해져서 프리메라 리페어빈 시카에센스를 듬뿍 바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피부가 촉촉하고 편안한 느낌이에요. 물론 자극 없이 순하고요. 끈적이지 않고 산뜻해서 데일리 케어에 좋은 에센스! 더블 시카 솔루션으로 속 땅김까지 해결했어요.



@liuvu

제 힐링 라이프를 만족시켜준 프리메라 리페어빈 시카에센스! 점성이 있는 에멀전 같은 제형이라 보습감도 우수하고, 키트에 들어 있는 시카 크림과 함께 바르니 촉촉함이 두 배예요. 활절기의 건조함도 철벽 방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cw.94122_6

제가 애정하는 프리메라 시카에센스가 대용량으로 나왔어요. 수분은 수분대로 채워주면서 사용감도 가볍고 피부에 흡수가 잘돼 매일 손이 가는 제품이지. 활절기 건조한 피부 때문에 고민이라면 진심으로 추천하는 에센스예요.



@_mylime

속이 건조한 피부라 수분진정 관리에 신경 쓰는데, 끈적임 없이 촉촉하게 스며드네요. 큼직한 대용량이라서 더욱 마음에 드는 제품!



프리메라 리페어빈 시카에센스 80ml + 시카 크림 20ml, 4만8천원. 건조한 환경에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주름 완화에도 효과적인 수분 에센스.

photographer CHOI MIN YOUNG
editor AHN SAE ROM

소셜 벤처, 제가 합니다

사회문제에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해 수익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이루는 소셜 벤처.

소셜 벤처를 운영하며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는 여성 대표들을 만났다.

photographer HAN DONG WON

editor LEE SUNG JIN



@handspeak.korea

정정은

10년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 농인 아티스트들과 함께하며, 참신하고 획기적인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핸드스피크의 대표.

핸드스피크를 창업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2010년, 제가 일하는 공연 기획사에 춤을 주고 싶었는데 무대에 설 기회가 없다는 농인 댄스 팀이 찾아왔었어요. 열정 가득한 눈빛과 수어로 꿈을 이야기하는 그들을 외면할 수 없더라고요. 당시 회사 대표님도 그러셨는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허락해주셔서 본격적으로 공연 연습을 시작했죠. 회사와 그들의 인연이 다한 뒤에도 꾸준한 댄스 팀과 연락하며 지내다가, 문화 예술 분야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본격적으로 일조하고 싶어 오랫동안 함께 해온 회화, 지연, 해진이와 함께 '농 엔터테인먼트'인 핸드스피크를 창업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나요? 핸드스피크는 청각 장애를 가진 분들의 문화 활동 소외와 참여 기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수어 문화 예술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합니다. 오디션을 열어 농 아티스트들을 선발하고 그들과 마음을 나누며, 그들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애써요. 아티스트들이 즐거워야 그 감정이 전달되니까요. 결과물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 공개한 '누가 죄인인가' 수어 뮤직비디오가 반응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프랑스에서 열리는 전 세계 농 예술 페스티벌에서 저희를 초청하며 대한민국이 주변국으로 선정되는 쾌거도 이뤄졌습니다. 이벤트 관련 홈페이지에 태극기가 걸려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느낀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극단은 새로운 공연 콘텐츠를 기획하고, 영상 팀은 농 문화를 담아낼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죠. 자체 개발한 폰트와 굿즈도 곧 나올 거예요. 농인 아티스트들과 함께 만든 작품을 통해, 그간 문화 예술 교육 환경이 많이 부족했던 농인 청년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그들과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피드백이 무엇인가요? 진짜 농인을 위한 콘텐츠가 나왔다.' 핸드스피크는 농인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꿈을 이뤄가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소름 끼친다.' 이 말들이요.



@rewind2na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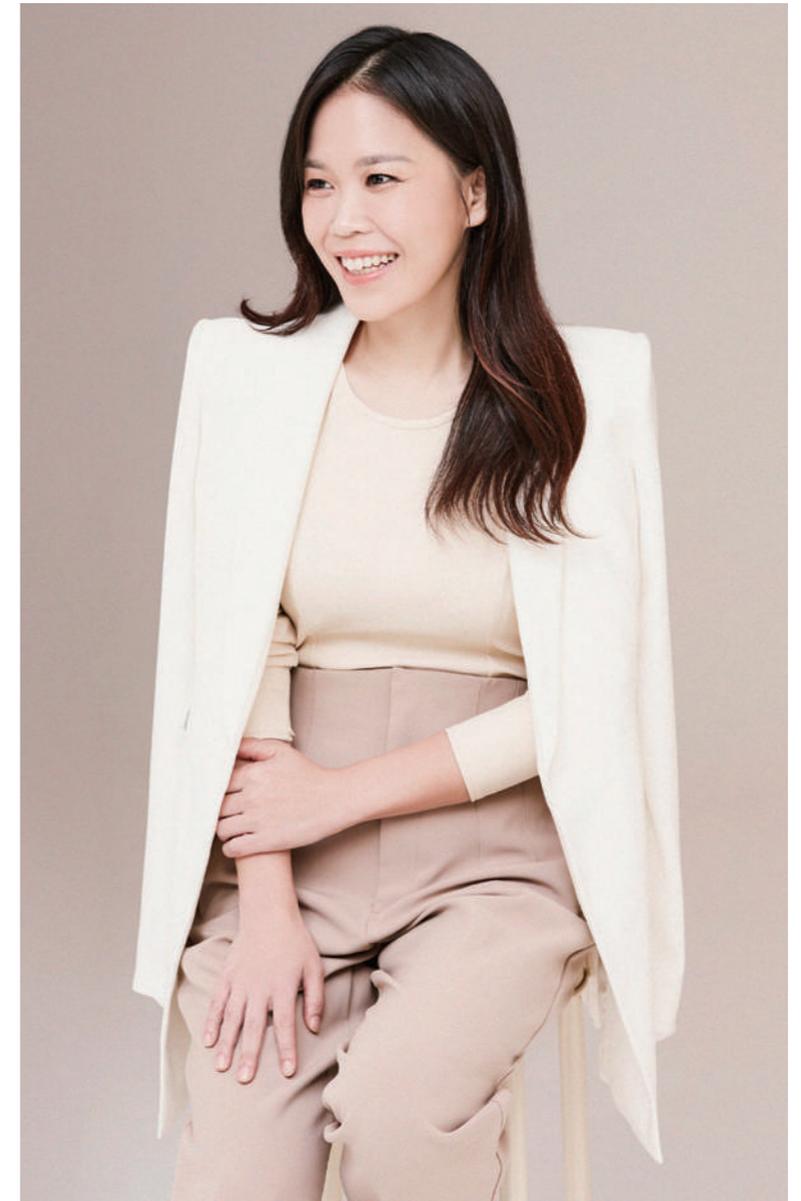
김은정

어린 시절부터 이어온 환경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리와인드를 창업했다.

리와인드는 어떤 회사인가요?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차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친환경적 대안을 제안하는 회사입니다. 배달 음식점, 카페, 대형 축제 등 어쩔 수 없이 일회용품을 사용해야 하는 곳이 많아요. 이런 곳을 위해 생분해가 가능한 일회용 테이크아웃 용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거죠.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환경 보전 시범 초등학교를 다녀서 그런지 은연중에 늘 자연을 생각하며 자란 것 같아요. 버려진 것에 캘리그라피로 가치를 더하는 캘리사이클링을 시작한 것도, 더 많은 사람들과 환경문제를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대학원에서 그린 디자인을 전공하며 '테이크아웃 용품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주제로 졸업 논문을 쓰면서 생분해 소재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됐어요. 단순히 자료만으로 논문을 쓰고 싶지 않고, 논문의 내용을 증명하고 싶기도 해서 지인들과 의기투합해 리와인드와 생분해 테이크아웃 전문 브랜드 아이엠 그리너를 만들었고요.

어떤 분들이 주요 고객인가요? 생분해 제품은 플라스틱과 비교하면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환경을 지키는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리와인드의 고객이 되어주셨습니다. 생분해 테이크아웃 컵을 사용하는 '그린 카페 멤버십'이 대표적이지요. 현재 전국의 카페 1백80여 곳이 참여하고 있는데, 올해는 앱을 개발해 그린 카페 맵 서비스와 앱 오더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밀집으로 만든 도시락 용기는 서울의 대형 호텔 몇 군데에 납품하고 있고, 친환경 테이크아웃 용품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해요. 식음료를 시작으로 분야를 점점 더 넓혀 현재는 달걀 담는 용기 같은 생활용품을 개발하고 있고요.



컵을 판매하는 업체인데 텀블러 사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들었어요. 친환경 소재로 대체해 제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자원이 생산되고 버려지는 것은 막을 수 없고 이 과정에서 환경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회용 컵을 판매하는 입장이지 않지만, 텀블러 사용을 권장하는 도어 행어를 제작해 브로슈어로 만들어 배포했어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실천에는 한계가 있으니, 저희 제품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비한 친환경 대안이기를 바라면서요.



들면 남쪽에서 피기 시작해 2주 뒤면 충청도 지역에서 피기 시작하는데, 저희는 전국의 농가와 함께 일하니까 결국 소비자는 한 달 가까이 목련을 볼 수 있는 거죠.
소셜 벤처를 창업하려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아무리 좋은 뜻을 품었다고 하더라도, 뜻이나 사명감만으로는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고객을 움직일 수 없어요. 수익 모델에 대해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 좋은 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고민해보세요. 모두 힘내세요!

@honestflower.kr

김다인

컨설턴트로 일하다 꽃에 관심을 갖게 됐고, 꽃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소외되고 주목받지 못하던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어니스트플라워를 오픈했다.

어니스트플라워를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컨설턴트로 일하다 지친 마음을 달래고 싶어 취미로 꽃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2016년 결혼식이 끝나면 버려지는 꽃을 필요한 곳에 전달하는 비영리 프로젝트 플리(FLRY)를 하게 됐고요. 이후 꽃을 활용한 영리 사업이 뭐가 있을지 고민하다가 화훼 농가에 주목했고, 어니스트플라워를 오픈했습니다.

어니스트플라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일단 생산자 입장에서는 일정한 소득을 보장받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예요. 꽃은 시장이나 수요의 변동에 따른 가격 폭이 엄청 큰데, 저희는 늘 일정 금액을 약속하거든요. 카네이션을 예로 들면 어버이날을 앞두고 값이 엄청 비싸졌다가 다음 날이면 폭락하는데, 어니스트플라워에서는 이런 걱정 없이 1년 내내 같은 값에 꽃을 팔 수 있는 거죠. 또, 꽃을 출하한 이후 어떻게 되는지 몰랐던 예전과 달리, 고객들의 피드백을 볼 수 있게 된 것도 장점이지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문과 동시에 포장된, 건강하고 싱싱한 꽃을 배송받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플로리스트가 아니라 생산자가 바로 꽃을 포장해 발송하기 때문에 가시와 잎이 그대로 달린 상태로 배송되는데, 이를 귀찮게 생각하는 고객도 있는 반면 장점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많아요.

화훼 농가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태안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을 다니며 농가를 섭외해요. 꽃도 생물인 터라 과일처럼 지역별로 편차가 있거든요. 농가 수가 많은 만큼 고객들이 원하는 꽃 종류의 70~80%는 소화하고 있다고 자부하기에 이제는 품목을 늘리는 대신 질을 높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여러 기후대의 지역을 아울러 꽃을 볼 수 있는 시기를 조금씩 늘려가고 있어요. 목련을 예로



282북스를 소개해주세요. 282북스는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하는 그룹이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워크숍을 진행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책이나 공연 등을 만듭니다. 꽤 인기가 있었던 <우리같이 행복하게>를 예로 들어볼게요. 사랑하는 반려동물 가족을 먼저 떠나보냈거나 곧 헤어져야 할 위기에 처해 죄책감, 상실감, 우울감 등으로 고통받는 펫로스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과 함께 만든 책인데, 같은 슬픔을 지닌 이들이 모여 애도의 시간을 갖고 각자의 상처를 시나 동화, 그림 등으로 풀어내는 워크숍을 진행했어요. 그때 나온 작품을 묶어 출판했죠.

창업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20대 중반에 심한 우울증으로 1년 정도 집 밖에 나오지 못했어요. 할 수 있는 거라곤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뿐이었죠. 매일 사소한 것부터 쓰다 보니 아파서 웅크리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 세상 밖으로 다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저와 같은 고통을 겪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쓰며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을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고, 그 일이 이어져 282북스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282북스를 운영하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소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다 보니 매출을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들의 이야기로 장사하려고 한다거나 몰라도 될 얘기를 굳이 꺼낸다는 식의 곱지 않은 시선도 따갑고요. 편견과 혐오를 깨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긍정적인 피드백과 공감의 시선을 느끼며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외면하는 이야기, 관심 없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거부감 없이 이끌어낼 수 있을지 늘 고민해요.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무엇인가요? '암 모델' 프로젝트요. 완치 이후에도 다양한 이유로 고통받는 암 투병 경험자들이 모여 다친 마음을 치유하고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전문 모델에게 워킹이나 포즈 취하는 방법을 배우에게 감정을 표출하는 방식을 배우면서요. 이분들과 화보를 촬영해 달력을 만들 예정입니다. ①

MAKEUP: BAE HYE RANG, HAIR: CHO SO HEE, STYLING: LEE GYEONGWON



@282books

강미선

글쓰기로 우울증을 치료한 자신의 경험을 살려 사람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예술로 치유하고 이를 세상 사람들과 공유하는 282북스를 운영하고 있다.



PLACE 전국 곳곳에 숨어 있는 미술관 옆아트숍



미술관의 아트숍

전시 관람과 쇼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미술관의 아트 편집숍5.

editor AHN SAE ROM



굿즈모아선물의집

문을 닫은 당구장을 개조해 개관한 이후 광화문으로 이전한 지금까지 설치, 다원 예술, 미디어 아트 등 문화 장르의 경계를 허물며 총 82팀의 국내 신진 크리에이터들과 협업을 진행해온 구슬모아당구장. 이곳에서 '굿즈모아선물의집-GOODS FOR YOU' 스토어를 오픈했다. '굿즈모아' 시리즈는 작가들과 협업한 콘텐츠로 공간 디자인과 굿즈로 대중에게 굿즈 문화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테마인 선물의 집은 동화처럼 꾸민 공간에 아가지기한 소품과 가구, 패브릭, 조명 등 사물을 다채로운 색으로 꾸며 인생의 희로애락을 다양한 시각으로 표현한 작가들의 작품을 감각적으로 배치했다. 12월 31일까지 진행할 예정.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프로젝트 스페이스 구슬모아당구장
문의 02-3785-0667

PHOTOGRAPHY: 국립현대미술관문화재단, 디뮤지엄, 디앤디파트먼트 제주, 프로젝트 스페이스, 구슬모아당구장, 백남준아트센터, 피크닉(키오스크키오스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아트존

전 세계에서 모인 아트 북과 디자인 소품, 패션용품, 공예품까지 다양한 물건을 만날 수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아트존. 서울관 1층에 위치한 이 공간에는 현대 공예와 디자인 문구, 예술 서적 등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나뉜숍이 자리 잡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외출이 꺼려진다면 국립현대미술관의 온라인 아트숍 '미술가게'에서 도록이나 전시, 소장품 연계 문화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주소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0
문의 02-3701-9500

백남준아트센터 뮤지엄숍

작품과 전시, 관련 서적 등 백남준의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백남준아트센터. 전시실과 연구 도서관 등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된 이곳에서는 전시뿐 아니라 워크숍 등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여러 활동을 진행한다. 현재는 비디오프로젝트와 텔레커뮤니케이션을 결합한 '백남준의 방송'을 키워드로 1960년대 말부터 1980년대까지 백남준이 선보였던 방송과 위성 작업을 중심으로 그의 텔레비전 탐구와 실험을 조명하는 전시 <백남준: 티비웨이브>를 개최 중이다. 1층의 뮤지엄숍에서는 백남준 작품을 오마주한 다양한 굿즈와 과거 전시 도록, 출판물 등을 볼 수 있다.

주소 경기 용인시 기흥구 백남준로 10
문의 031-201-8500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따라 별도 안내일까지 임시 휴관 중)



<백남준: 티비웨이브> 전시 전경, 2020, 백남준아트센터



디앤디파트먼트 제주 by 아라리오

제주국제공항 근처 탐동에 위치한 디앤디파트먼트 제주. 일본의 디자이너 나가오카 겐메이와 합작해 제주의 다양한 디자인 상품과 제주 음식 식당, 갤러리, 게스트 룸까지 라이프스타일의 모든 것을 집대성 해놓은 복합 문화 공간이다. 제주의 특성과 슬로 라이프를 추구하는 것이 이 공간의 공통점. 2층에 위치한숍에서는 제주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옹기 와 현무암으로 만든 굿즈 등도 볼 수 있다.

주소 제주시 탐동로2길 3
문의 064-753-9904

키오스크키오스크

전시 기획사 글린트가 운영하는 복합 문화 공간 피크닉에 위치한 편집숍 키오스크키오스크. 다양한 물건을 판매하는 간이매점이나 매대를 의미하는 키오스크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내외 독립 브랜드의 개성 있는 물건들을 파는 작고 귀여운 문구점처럼 꾸민 공간으로 창작자와 소비자의 생각을 연결한다는 철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수많은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출판사와 함께 제작한 70여 개 브랜드의 상품을 둘러볼 수 있다. 최근 성수동 서울숲 근처에 키오스크키오스크 2호점을 열었다. **1D**



주소 (1호점) 서울시 중구 퇴계로67길 30 피크닉 1층
(2호점) 서울숲2길 18-14 2층
문의 070-7767-0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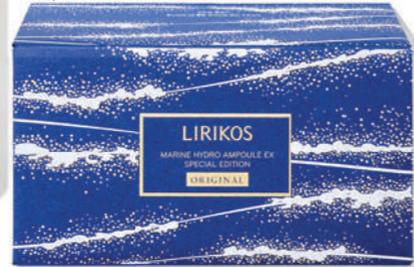


ITEM 이달의 추천 제품



1 헤라 시그니아 크림
3백만 수산화 식물세포를 한병에 담아낸, 부드럽고 풍부한 고농축 텍스처가 피부에 부드럽게 밀착되어 탄탄하고 매끄럽게 광채 피부를 완성시키는 안티에이징 크림 60ml, 28만원.

2 리리코스 마린 하이드로 앰플 EX 스페셜 에디션 수분 앰플의 대명사로 강력한 효능을 자랑하는 앰플과 증정용 크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5ml×12ea)+8g, 11만원.



3 프리메라 그린티 바이옴 스칼프 헤어 콜링 샴푸 & 헤어 모이스처라이저 열이 오른 두피를 시원하게 진정시켜주고, 린스를 따로 하지 않아도 매끈하고 볼륨 있게 손질할 수 있는 탈모 완화 샴푸와 두피부터 모발 끝까지 사용 가능한 두피와 모발 전용 수분 로션. 각각 380ml, 3만7천원/ 150ml, 3만원.

이달의 필수템 미리보기

에디터가 칸칸하게 고른 10월의 필수템.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CHOI SEUNG HYUK



4 헤라 에이지 어웨이 콜라제닉 세럼
헤라의 대표적인 안티에이징 라인, 에이지 어웨이가 더욱 강력해졌다. 콜라겐 성분이 강화돼 더 탱탱한 피부를 보장한다. 40ml, 12만원/ 리필 40ml, 10만원.



5 헤라 지일 블루밍 퍼퓸드 샤워 젤 & 바디로션
고혹적이고 신비로운 향을 풍기는 머스크 베이스의 향수, 지일 라인에서 선보이는 샤워 젤과 바디로션. 가을 분위기 연출에 제격이다. 각각 270ml, 4만7천원/ 250ml, 5만원.

프리메라 알파인 베리 워터리 크림 & 워터리 수딩 젤 크림
국민 수분 크림으로 정평이난 프리메라의 알파인 베리 워터리 크림이 새로운 패키지와 텍스처로 돌아왔다. 피부 타입이나 고민에 맞게 골라 사용하면 최적의 피부 컨디션 회복과 진정이 가능하다. 각각 50ml, 3만9천원.



워터리 크림으로 테일리페어



쉽게 뒤집어지는 요즘 민감 피부*
더 강력한 진정-회복**이 필요하니까
워터리 크림으로 1일 1리페어 하자

*마스크 등 외부 환경에 의해 자극받은 피부
**피부 컨디션 회복을 의미

알파인 베리 워터리 크림
primera



HERA
SIGNIA